

## 호스피스 완화요법으로서의 미술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정 희

### 요 약

신체적 질병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을 위한 미술치료의 사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되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제작하는 창조적인 과정이 심각한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라는 인식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미술치료는 사람들이 고통과 몸을 쇠약하게 하는 그 밖의 증상들과 대결하도록 도와 감정과 신체적 증상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의학적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1998, Cathy A. Malchiodi),

완화의학이 삶이 제한된 질환을 가진 환자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며 치료하는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서 질환의 초점을 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증상 조절 등 완화에 두고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관심을 둔다면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미술치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미술치료의 정의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에서 탄생한 미술치료는 이론적 관점과 방법적 관점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정여주, 2003),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결합된 심리 치료의 한 형태(Paola Luzzato, 2001)

로서 미술작업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김진숙, 1996)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내면으로부터의 표현으로써 느낌, 생각, 상상 같은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Cathy A. Malchiodi, 1998). 따라서 내부로부터 표현된 시각적 이미지를 미술치료사가 함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표출하게 하여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 과정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미술치료라 할 수 있다.

### 미술치료의 배경과 발달사

20세기에 들어서 정신분석학의 출현과 함께 화가들은 상징과 무의식적인 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신과의사들은 투사적 검사의 발전과 정신질환자들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치료사들처럼 미술치료사들은 환자들의 미술표현과 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미지의 상징적인 내용에 대한 정신 분석적 흐름과 믿음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Malchiodi, 1998).

상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S. Freud와 C. G. Jung의 공헌도는 상당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Freud는 이미지는 잊혀지거나 억압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러한 상징은 꿈이나 미술표현을 통해 드

리나며, 환자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희은, 2001). 또한 Jung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무의식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고 그 이미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환자의 그림을 통하여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창작행위를 통하여 인간정신 중심에 있는 무의식의 창조적인 자기가 자극되고 활성화된다고 보았다(김진숙, 2003).

이러한 심리학적 배경 위에 1940년대부터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던 미술가이자 아동미술교육자로서 정신분석을 받았던 Margaret Naumberg에 의하여 현대미술치료가 자리잡게 된다. Naumberg는 Freud와 Jung의 영향을 받아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인 그림(spontaneous drawing)표현과 그 해석, 그림의 상징성 등을 중요시하였다(2003, 윤희원). 이러한 Naumberg의 이론을 심리치료과정에서 그림을 매개로 이용하는 방법(Art in therapy)으로 '미술심리치료'로 구분되고, 현재까지 미술치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2003, 김진숙).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Edith Kramer는 정신분석 이론을 배경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나 Naumberg와는 달리 미술의 제작과정과 창조활동 자체의 통합적 치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을 제시하였다. Kramer는 내담자가 창작활동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갈등을 배설하고 파괴적 에너지를 전환시키는가에 주목하였고(주리에, 2001), 내담자의 승화와 통합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미술치료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61년에 『미국 미술치료지』(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가 발간되었고, 1966년 미국미술치료협회(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association)가 설립되면서 미술치료는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자

리를 굳히게 되었다.(최재영, 1993; 재인용) 이후 Ulman은 미술치료의 확립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Naumberg, Kramer와 더불어 Freud의 정신분석적 틀 내에서 인간의 내적 갈등과 승화라는 중요한 두 개념을 미술치료에 도입하였다.

이후 연구는 대상관계 이론을 미술치료에 접목한 Robbins (1987), Jung의 적극적 명상을 도입한 Wallace, 미술을 자기지각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Rhyne, 언어적 지능과 다른 시각적·공간적 지능을 재는 검사 기법을 만든 Silver (1983), 절충적 접근을 시도한 Wadson, 아동미술에 탁월한 Rubin (1978)과 Malchiodi (1990) 등으로 이어졌다(김희은, 2002).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미술치료가 소개되었고, 최근에 들어서 일부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미술치료, 예술치료과정이 개설되었다.

미술치료는 그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크게 정신 역동적 접근<sup>1)</sup>법과 인본주의적 접근<sup>2)</sup> 그리고 행동주의적·인지론적·발달론적 접근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그림, 연기, 소리, 동작 등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현대 심리 치료로서 표현 예술치료를 지향하고 있다(2003, 김진숙).

## 미술치료에서 치료의 의미

모든 정신·심리적인 장애는 증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술치료에서 치료라는 것이 다른 모든 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상의 경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술에서 치료의 의미는 단순한 증상

- 1) Freud의 정신 분석적 미술치료, Jung의 분석적 미술치료 외에도 대상관계론 접근, 자아심리학적 접근이 있다.
- 2) 현상학적 미술치료, 게슈탈트 미술치료, 인간중심 미술치료 등이 있다.

경감에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김진숙, 2003).

1. 증상경감
2. 편파적인 개인을 전인격적인 개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3. 지체된 정신발달 과정을 촉진하게 도와주는 것.
4. 남을 이해 할 수 있는 보다 원만한 성격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5.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창조성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고 삶에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

### 미술치료의 두 차원

#### 1. 치료적 차원

일반적으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로써, 병원에서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그러한 정도의 증세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증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하는 방면이다. 대표적으로 정신 분열, 학대아동 및 청소년, 중독증(약물, 알코올), 대인기피증, 무력증, 장기 입원환자, 노인성 질병, 직업병, 정신지체 질환 등이 있다.

#### 2. 예방적 차원

병과 건강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예방적 차원의 미술치료는 잠재된 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소극적인 요소들을 감소시키며, 더욱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술치료를 적용시킬 수 있다.

### 미술치료의 가치

캐시A. 말키오디는(Cathy A. malchiodi) 그의 저서 <미술치료 THE ART THERAPY SOURCE-BOOK>에서 왜 미술치료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시각적 사고:**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Freud와 Jung은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된다. 결과적으로 미술활동은 무의식과 표출되지 않은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길을 열어준다.

2.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미술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따라서 방어를 감소시킨다. 내담자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심상이 표현되기도 한다.

3. **감정적 해방 = 카타르시스:** 치료에서 이는 고통을 덜기 위해 강렬한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미술작품 창작:** 미술은 실제 행동이고 시간이 흘러도 보존되는 구체적 결과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와 사건, 느낌 그라고 생각의 양식과 변화를 볼 수 있다.

5. **미술창조는 삶을 향상시킨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화가들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진 자신의 갈등에 대한 의미를 찾으며, 인간의 고통을 탐구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이용해 왔다. 미술활동과 같은 창조적 경험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활동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여러 부분들을 통합시키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화가 파울 클레, 빈센트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sup>3)</sup>

3)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그림을 통해 사랑의 결핍과 외로

6. 미술작품 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든 미술 표현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자존감을 높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활동이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7. 인식방법으로서의 미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한 방법'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할 수도 있다. 창조적 잠재성과 즐거움의 근원을 확인하거나 우울과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 미술활동의 치유력

미술활동은 질병이나 증상에 대처하는 것을 학습하게 하고,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하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의 형태이든 재활의 형태이든, 신체적 치유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Fig. 1. 칼로, 부서지진 기둥, 1944

음, 고통을 호소하려 했으며, 그는 그림은 그자체로 말한다(Picture speaks itself).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그의 일생동안 유화로 그린 36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마음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자화상을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다.

Fig. 1은 멕시코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작품이다. 건강문제와 일생에 걸친 투쟁을 고찰하고 표현하는 많은 자화상을 그렸다. 칼로는 소아마비, 선천성 척추 질병, 그리고 18세 겪은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그녀는 평생 동안 건강문제로 시달렸고, 서른 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칼로는 많은 그림들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묘사했는데,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칼로는 그림을 통해 통증에 고통 받거나,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자신을 보여 주고 있는데 손톱에 찢긴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창조하거나, 자신의 척추를 부서진 기둥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재미있고 단순하며 생기 넘치는 회화와 드로잉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파울 클레(1879~1940)는 피부와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진행성 질병인 피부경화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그 결과 그는 자세한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되었고, 그의 많은 후기작품들이 병의 진행과 함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투쟁을 보여준다. 클레는 이 시기동안 “나는 이렇게 열렬하게 그려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울지 않기 위해 그린다.”고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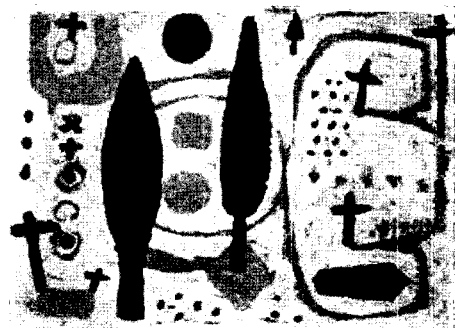


Fig. 2. 클레, 묘지, 1939

반듯하게 꽂힌 7개의 검은 십자가, 누워있는 1개의 십자가, 2그루의 검은 나무가 묘지를 상징하고, 검은 태양과 원경의 화살 모양의 검은 나무는 천국을 가리키는 듯하다. 클레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다. 제목과 그림에 표현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하다. 질병으로 섬세한 테크닉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말기 그림들에서는 오히려 선명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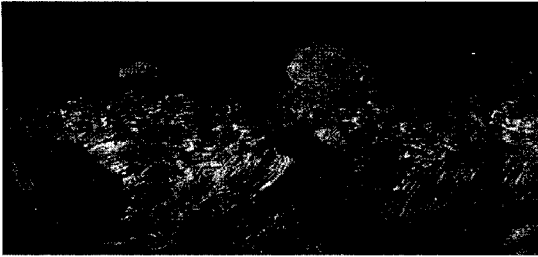


Fig. 3. 고흐, 까마귀가 나는 밀밭, 1890  
 고흐의 마지막 작품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조종의 요소로 볼 수 있는 회오리치는 광포한 붓 터치와 위협적으로 내리 누르는 검푸른 하늘로 표현된 것에서 우울증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자살로 물고 간 음침한 생각들의 화신인 양 검은 새 한 무리가 그 위를 날아간다.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가로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말년에 간질병으로 인한 한 불안과 정신적 혼란, 폭발적인 분노를 동반하는 정서장애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흐는 죽기 전 거대한 밀밭을 주로 그렸는데 그이 마지막 여름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어지러운 하늘 아래 펼쳐진 거대한 밀밭을 그리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슬픔과 극단적인 고통을 표현 하였다.”

외과의사로서 예술을 사랑한 Philip Sandblom<sup>4)</sup>은 ‘Creativity and Disease’라는 그의 연구 논문에서 위대한 예술가들과 창조성 간에 존재한 신비로운 관계들에 흥미진진하게 풀어놓았다.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 자신에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들만의 창조적 작업만이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하였고, 그들의 인생을 통찰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마티스는 충수염과 그 합병증으로 1년간 쉬고 있을 때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색을 발견하고 몸담고 있던 범조계를 떠나 화가의 길로 들어서고 그가 겪은 창조적

충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림에 흘렀다.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종의 파라다이스로 옮겨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뭔가가 나를 몰아갔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나의 평범한 삶에는 빠져 있던 어떤 것, 어떤 힘 같은 거였다.”

“어떤 거대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그림의 질서상의 긴장, 그림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과 관계 자체에서 오는 긴장감이었다.”



Fig. 4. 마티스, Blue Nude II, 1952  
 말년의 잘라낸 종이로 구성된 작품. 그의 신체 상태가 그만큼 예술적 수단을 요구하게 되자 어쩔 수없이 만들어진 양식이다. 이 작업 속에 보이는 유희적 가벼움은 마티스의 생산적인 상상력과 다재다능한 성격에 또 다른 수도꼭지를 틀어 주었다. 마티스는 병으로 고통 받는 친구들의 침대 주변에 자기 그림을 걸어줄 만큼 자신의 작품에 쓰인 색들이 건강하게 빛난다고 믿었다. 그는 그것의 치유력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일흔이 넘어 마티스는 다시 결장암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생명을 겨우 구하고 고통으로 인해 그는 점점 흔들리고 고집불통으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상처가 감염되어 커다란 탈장이 생겼다. 결국 그는 13년간 동안 거의 침대에만 묶여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마티스는 초기에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 속에서 현대 미술의 길들을 개척했지만 말년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빛을 따라 스스로 일구어온 작업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평온하

4) Philip Sandblom은 1903년 시카고에서 태어나 스웨덴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외과 의사가 되었다. Creativity and Disease 그의 연구논문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겪는 질환과 고통들이 예술가들의 창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추적했다.

고 행복함을 발견할 수 있다.

Sandblom의 책 『창조성과 고통』에서 예술가가 신체적으로 극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의사의 눈으로 관찰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여러 위대한 예술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들이 주장하는 예술의 치유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하이네, 블랙센, 지드, 그린과 같은 예술가는 창작이야말로 삶의 고통을 전달 수 있게 하는 수단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의 치료효과를 확인해 주었다.”

유명한 영국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Oliver Sacks는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이 제공하는 ‘깨달음’의 특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깨어남은 기본적으로 반전이다... 환자는 질병의 존재와 세상의 부재에 대해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질병의 부재와 충만한 세상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미술활동은 창조적 작업에 몰두해 있는 시간 동안만은 정상적인 상태의 경험을 하게 한다. 미술활동은 질병으로부터 주의를 이동시킬 뿐 아니라, 고통이나 몸을 쇠약하게 하는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분전환이 될 수 있다(Malchiodi, 1998).

## 호스피스 미술치료

1978년 미국의 NHO (National Hospice Association)측에서는 호스피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종은 자연스런 삶의 한 과정으로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임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는 임종환자를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의 보다 나은 대안이며 의리지식을 포함한 모든 필요 전문 지

식을 동원하여 임종환자의 삶의 질을 높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죽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시까지의 삶을 확인시킨다. 호스피스는 독립된 전문기관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된 종합 의료팀의 임종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가정간호와 입원간호를 제공하는 의료 프로그램이다.”

한편, 호스피스에게 있어서 통증과 증상의 관리가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으며 문학, 미술, 음악 및 체육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암 치료에 도입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미술치료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첫 인물로는 Royal Marsden Hospital의 미술치료사인 Camilla Connell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87년 동 병원에서 10년간 암과 투병생활 중인 42세의 Atalia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지난 1992년 “Palliative Medicine”지에 발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동 병원은 지난 1989년, 마리 큐리 재활센터 (Marie Curie Rehabilitation)를 새로이 개설하여 미술치료를 암 치료의 일부분으로 정식 의료서비스를 채택하게 된 이후 현재 영국 전역에서 완화요법으로서의 미술치료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으며 일반 병원과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병원에서 미술치료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onnell은 “암 치료에 있어 미술치료는 환자들의 상이하고 다양한 통증에 대응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달리 표현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암 치료에 있어 미술치료의 중요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그는 “환자 스스로의 상황을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하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미술치료의 암 환자를 대하는 자세에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술치료사는 선생도 통역자도 아닌 ‘의문을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적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얻어

서는 아니 된다.” 고 말하고 있어 미술치료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미술치료 실제 임상 사례 연구와 함께 미술치료사들에게 던져져있는 숙제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사례 1<sup>5)</sup>

실시자: Camilla Connell, Royal Marsden Hospital, London

대 상: 10년간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인 Atalia (42세, 여성)

실시방법: 18개월간 drawing 및 painting 등 다양한 미술적 체험.

Atalia는 18개월간의 미술 체험, 특히 drawing 과 painting 작업들을 통하여 본인의 미술 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에 커다란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어내었으며 이와 더불어 그녀 주위에 있는 모든 물품들에 관하여서도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예를 들어 morphine pot을 물감 혼합용 용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래 그림들은 어느 오후 2시간 30분 동안 Atalia가 완성한 그림들이다.

Fig. 5> The sea painting

빨간색 물감을 화지위에 직접 부은 후 붓은 던져 버리고 핑거페인팅 기법으로 격정적이고 사나운 바다를 표현한 것인데, 이 그림에 사용되어진 빨간색과 표현 기법에서 Atalia의 내적인 분노의 폭발이 표현 되어 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 그림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그들의 내적인 욕구들과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 The sea painting

Fig. 5. The sea painting.

Fig. 6> Is this chaos?

물감을 화지위에 직접 부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붓으로 그 물감을 세계 곳곳 짚어 누르듯이 표현한 작품인데 Atalia는 반복적으로 ‘이것이 무질서(혼돈)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몇 번을 반복해서 물감을 계속 부어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하얀색의 물감을 뿌린 후 작업을 끝냈다.



Figure 2

Fig. 6. Is this chaos?

Fig. 7> Pink and yellow painting

이 그림은 물감을 화지위에 직접 부은 후에 Atalia가 설명한 대로 ‘떠오르는 평화와 빛’을 붓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5) Camilla Connell, Art therapy as part of a palliative care programme. Palliative Med 6: 20-23 (1992)



Figure 3 Pink and yellow painting

Fig. 7. Pink and yellow painting.

Fig. 8> The desert with three plants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Atalia는 다른 종류의 종이와 크레용을 요청하였다. Atalia는 마치 깨끗한 색이 순수한 의미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 전에 크레용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았다. 이 그림은 하늘, 땅, 식물의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풍경화이다. 평소에 그녀의 내부에서 죽음을 전혀 응시하지도 않고, 뭔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 작업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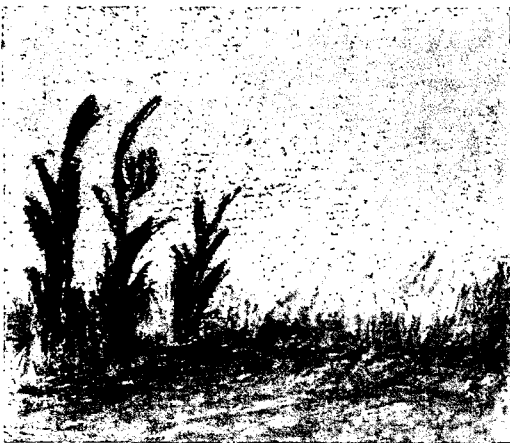


Figure 4 The desert with three plants

Fig. 8. The desert with three plants.

이 네 장의 그림을 통해서 Atalia는 궁극적으로 그녀가 이루어야 할 내적인 통합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혼돈 상황, 열증함과 떠오르는 빛과 평화의 세 가지 이미지를 하나의 내적 구조로 통일을 시켰다.

Connell은 이 사례를 통하여 환자와 미술치료사 간의 상호작용과 환자가 미술치료를 접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미술치료사의 환자에 대한 수용적이고 지지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는 필수적이라고 밝힌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미술치료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 스스로 내면의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들을 어떻게 표출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미지화 시키는 것의 강한 효과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화 시키는 어떤 단계에서는 해롭지 않고 즐거운 놀이의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는 논리적인 마음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심리적인 억압상태에서 이미지들은 의식적으로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은 곳의 감정들이 스프링에 튀기듯이 이미지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환자에 의해 표출되어진 이미지에 대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해석을 한다거나 상징화시켜서는 안 되며, 이미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26)

실시자: Gill Thomas, 영국 공인 미술치료사, Edenhall hospice, Marie Curie Cancer Center, UK

대 상: Helen, 45세 여성 유방암 환자, 두 명의 자녀가 있음.

6) Gill Thomas, "Art therapy and practice in palliative care", EUROPE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2 (3): 120-123 (1995)



**실시방법:**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미술활동의 주제나 재료를 환자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 Session 1

Helen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발생하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미술치료를 권유받고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술치료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매우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녀에게 온 회복을 바라는 지인들로부터 온 많은 카드(get well card)들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지쳐있고 투병 중에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다. Helen은 그녀가 받은 수많은 'get well cards'를 이용하여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싶어했다. Helen은 카드들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분류하다가 화살표 모양의 카드는 그녀를 그녀가 겪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질병이 없는 곳으로 밀어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Fig. 9 참조).

(처음에는 미술치료 시간이 불편했으나 미술재료를 접하면서 편하게 되었다고 함.)



Fig. 9. Helen이 1시간 30분 동안 카드를 분류하고 자르고 배치한 작품.

### Session 2

Helen은 전 시간에 하던 카드 작업을 계속했다. 카드를 다시 재배치하고 큰 종이에 풀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카드 사이사이를 물감으로 칠하기 시작했다. 작업 중에 Helen은 그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커다랗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Helen은 자신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고 보관하고 싶어했다. Helen은 작업 중에 그녀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지금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녀 자신만의 화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Session 3

Helen은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종위위에 카드를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무엇이 표현되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Helen에게 쉽지 않아 보였다. 작업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하는 Helen에게 머릴 떨어뜨려서 보라고 제안했다. 잠시 후 Helen은 “어머나 세상에, 이것은 전화기예요!”라고

gave a  
was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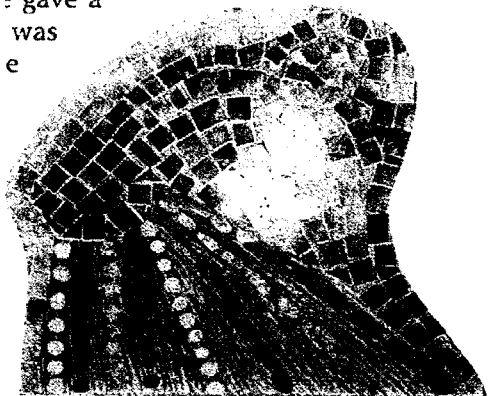


Fig. 10. Helen의 생명 줄을 의미하는 전화기.

외쳤다. 전화기는 그녀에게 바깥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였다. 전화기는 또한 그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 올 때면 Helen은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Helen은 이 작품은 보관하기 싫어했고 치료사에게 맡겼다. 그 후로도 4개월간 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 사례 3

Alex는 64세의 남자로 폐암 환자이다. 호흡장애와 두려움과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울 때문에 미술치료를 받게 되었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Alex는 유화를 즐겨 그렸었다. 미술치료사가 처음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커튼은 닫혀 있었고, 실내는 어두웠다. 양손이 마비되어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또한 테레핀<sup>7)</sup> 냄새도 이젠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걱정과 근심, 우울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은 후 미술치료사는 젖은 종이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는 기법을 소개했다(이 기법은 무독성이며 느껴지는 냄새도 없다. 이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호흡곤란을 격심하게 하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종이를 물에 흠뻑 적신 후에 Alex와 치료사는 번갈아 가면서 물감을 짠다. Alex는 어두운 색 물감을, 치료사는 반대로 밝은색 물감을 선택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닫혀 있던 커튼은 그려진 그림의 색을 더 잘 보기 위해 밝게 열려졌다. 이 추상화가 완성되어졌을 때는 Alex의 방은 더욱 밝아졌고, 그의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Alex의 미술치료는 몇 달 동안 계속 되어졌고 그의 창조적 본능은 다시 살아났다. 그는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 자신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보냈으며,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Alex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창조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자신을 표현한 이후로 정서적 고통이 두드러지게 줄었으며, 게다가 그의 호흡곤란도 좋아졌다. Alex는 더 이상 그의 질병과 압박한 그의 죽음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의 삶과 죽음에 보다 안정을 찾게 되었다.<sup>8)</sup>

## 결 론

많은 환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고, 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예후를 부인한다. 마찬가지로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또한 환자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또한 남겨진 시간의 길이에 따라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정도가 달라진다. 고통의 종류는 처치 중에 수반되는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해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 남겨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들은 그들이 겪는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영혼의 문제들이 표출되지 않으면 고통이 훨씬 증가한다는 보고(Barbara, 1999)에서처럼 그들의 숨겨진 감정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표출하게 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감소되어진다.<sup>9)</sup> 환자

7) 테레핀(turpentine) - 소나무 줄기에서 얻은 수지를 증류하여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유화물감을 희석하는데 사용함.

8) Barbra Trauger-Querry, "Balancing the Focus: Art and Music Therapy for Pain Control and Symptom Management in Hospice Care" *The Hospice Journal*, 14(1): 32-33 (1999)

가 이러한 고통을 표출함에 있어서 잘 훈련된 미술 치료사가 환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창조하게 하고 환자 스스로 통찰하게 하는 것이 미술치료의 역할이다. 따라서 미술치료사는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환자에게 적절한 재료도 소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환자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예술가적인 독창성과 유연성, 유창성이 있어야함과 동시에 상담치료나 심리치료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호스피스 철학에서처럼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 스스로 죽음을 성숙하게 수용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호스피스 미술치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진숙. 표현 예술치료란 무엇인가. 명지예술심리치료연구센터, 2003
- 2)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 3) Cathy A. Malchiodi 미술치료. 최재영 외 1역, 서울: 조형교육
- 4) Phillip Sandblom. 창조성과 고통, 박승숙 역, 서울: 아트북스
- 5) K. Heywood. Introducing Art Therapy into the Christie Hospital Manchester UK 2001-2002. Complementary Therapies in Nursing & Midwifery 2003;9:125-32
- 6) Cynthia E Kennett. Participation in a creative arts project can foster hope in a hospice day centre. 2000;14:419-25
- 7) Paola Luzzatto. Art Therapy with adult bone marrow transplant patients in isolation: A pilot study. Psycho-oncology 2001;10:114-23
- 8) Barbara B. McIntyre. Art Therapy with Bereaved children. Hospice News 1992:62-65 (May)

9) Barbra Trauger-Querry, "Balancing the Focus: Art and Music Therapy for Pain Control and Symptom Management in Hospice Care" The Hospice Journal, 14(1): 25-37 (1999)